

## 제 56회 베니스비엔날레 9일 개막... `세계의 미래`와 미술한류가 만난다

임흥순 남화연 김아영 등 한국작가 3명 본전시 참여  
대형 단색화 기획전도 열려...전준호·문경원 수상 가능성

기사입력 2015.05.03 17:17:07 | 최종수정 2015.05.03 23:08:54



촉지법과 비행술, 2015, HD Film Installation, 10 min 30 sec

9일 개막하는 지구촌 최대 미술행사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 미술이 최고 성적표를 거머쥘지 주목된다. 1895년 첫 닻을 올린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로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자랑한다. 특히 1986년 한국이 처음 참가한 이후 올해만큼 한국 미술이 베니스에 다각도로 소개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비엔날레에 거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베니스비엔날레는 햇수로 올해 120주년을 맞고 자르디니공원 내에 한국관이 설립(1995년)된 지 20주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다.

11월 22일까지 장장 6개월 가까이 계속될 베니스비엔날레 행사는 크게 총감독이 기획하는 본전시, 각국이 대표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가관 전시,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이 승인한 병행전시(Collateral Events)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올해 총감독은 나이지리아 출신 오쿠이 엔위저(52)가 맡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엔위저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아 한국과 인연이 있는 큐레이터다. 53개국 출신의 총 136명이 본전시에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임흥순(46), 남화연(36), 김아영(36) 등 한국 작가 3명이 진출했다. 한국 작가의 본전시 참여는 6년 만이다. 김아영은 설치·퍼포먼스 작업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셀3`를, 남화연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튜립 파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상작업 `욕망의 식물학`을 발표한다. 임흥순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위로공단`이라는 영상작품을 보여준다.

한국관에선 배우 임수정이 출연한 영상설치작품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을 선보인다. 한국관 커미셔너는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소속인 이숙경이 맡고 문경원·전준호 작가가 참여한다. 이용우 세계비엔날레협회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에 초빙돼 한국관 수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병행전시로는 총 44건이 준비된다. 이 중 벨기에 보고시안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는 단색화전이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에서 열린다. 고(故) 정창섭과 김환기를 비롯해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 세계 아트페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단색화가 미술관 관계자와 큐레이터들이 집결하는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성전시로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김승민이 "우리는 왜 베니스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되짚으며 기획한 전시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가 예정돼 있다. 한국의 젊은 작가 8명과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미술상 `터너`상의 2007년 수상작가인 마크 윌링거가 참여한다.

비엔날레 개최 기간 열리는 `개인적인 건축물`이라는 제목의 전시에는 국내외 참여작가 50여 명 중 한국 작가로는 이이남, 한호 등 6명이 포함됐다. 팔라초 모라에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 남흥의 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다.

[이향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